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15호
발행일 : 2001.06.30

[기증자이야기]

더불어 사는 삶

박 영 운

나는 늘 생각한다.
'무엇 때문에 살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이성과 감성은 항상 이처럼 삶과 죽음의 선을 넘나든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른다. 다만 '개똥밭에 굴러도 좋다'는 말이 있어 이 삶을 즐기고자 할 뿐이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할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나온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얻은 결론하나는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어려울 때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그러할 때 '우리'라는 말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삶, '우리'라는 말을 통해 이룰 수 있으리라.
사무실에 다기를 갖다 놓고 차를 우려내어 동료들과 함께 마셨다. 종종 사무실로 헌혈한 결과의 우편물이 날아온다. 그리고 업무적인 일 이외에는 한복을 입고 다닌다. 평소의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한번은 사무실의 한 동료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혼자서 소리내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의 튀는 행동에 조언을 주고자 한 말이다.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러한 나의 행동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좋으면 함께 하고, 자신이 못 받아들일지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로써 잘 어울릴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보통사람들이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만 쳐다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서 권장하고 다닌다. 한복은 옷이 편해서 입고, 녹차를 마시는 즐거움이 깊어 같이하고자 한다.
헌혈은 가장 하기 쉬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헌혈을 해도 피는 금방 다시 생긴다.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다.
1996년도에 헌혈의 집에서 골수기증신청을 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혹시 신청이 잘

못되었나 확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0년 말경에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나와 혈액조직이 맞는 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순간 기뻤다. 병원에서 두 밤을 자야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했다. 친구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냐고 했지만 별 느낌이 없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골수를 뽑기 전에 건강진단과 두 번의 자가헌혈을 하였다. 자가헌혈이란, 다시 나에게 수혈하기 위해서란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몇몇 친구에게만 맛있는 것 싸가지고 병문안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별일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주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보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는 회사에서 행사가 있다고 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잘 모르시는 데다, 텔레비전을 통해 헌혈과 관련된 일을 좋지 않게 보시기 때문이다. 처음 헌혈을 할 때 반대가 심하셨고, 골수기증을 하기로 한 뒤에는 나의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달리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한 부모님이라 반대를 하실 것이 눈에 선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보통 골수기증 수술은 아침 첫 번째로 한다고 했다. 나는 5시경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잠이 왔다.

깨어보니 머리가 아팠다. 어지러웠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거니 했더니 웬걸 하루종일 힘들었다. 한끼도 먹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 토해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토해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정말 힘들었다. 그렇다고 일어서지도 못하였다. 수술한 부위를 바닥에 꼭 대고 있어야 상처가 잘 아문다고 하여서이다. 이날 하루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나아졌다. 하루종일 누워 있어서 일어난 현상인지 어지럼증 말고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천천히 걸어다니니 점점 좋아졌다. 11시 조금 넘어서 퇴원했다. 수술한 부위가 약간 뻐근했지만 금새 좋아졌고,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는 밤을 새도 무리가 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나의 꿈이다. 어느 면에서는 나는 이미 꿈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나 혼자의 만족일 뿐 아직 멀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나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면서 메워야 하니까. 골수기증을 통해 새로운 경험도 하였고, 또 병원에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도 만났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았다. 그리고 골수은행협회에 종사하는 분들도 만났으며, 그 중에는 골수이식을 하신 분도 있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얻은 것도 많고 기분도 좋다.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살면 주위에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나라도 헌혈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골수기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해 본다.

골수분자가 됩시다

이 정 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골수분자'(골수를 나눈 사람)에 참여한 이정준 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골수기증을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로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2년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기기증 집회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어질 육신이기에 기꺼이 기증신청을 하였는데, 지난해 가을 저에게 걸려온 골수기증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는 참으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전에는 말로만 장기기증자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 기증자로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걸려온 전화에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 정밀검사 및 1, 2차에 걸친 자가수혈용 헌혈을 하는 동안 약간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혹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지는 않을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기타 등등의 잡생각들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변에 '골수분자'가 있지 않다 보니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 대단하다. 그거 하면 돈 얼마나 준대? 그거 되게 아프다더라.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냐?' 등등등.....
그런데 방송에서 들려온 소식은 저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하면서 약간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골수기증 신청자 중 많은 분들이 골수기증의사를 확인할 때 거부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거부하다니.....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였지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었기에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인데...
제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그날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외국에 살고 계신 분이 백혈병으로 골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 검사조차도 거부했다는 소식은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이 참 한심한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무슨 일을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 거부하다니?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그 부모님을 무슨 얼굴로 대할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아침 일찍 준비하여 수술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수술을 하실 환자 분들이 대기실에 많이 모이시더군요. 저는 수술대기실에 있기가 왠지 민망하다고 할까, 좀 표현하기가 모호한데 수술대기자 분들이 저만 빼고 다들 진짜환자라 어떤 분은 기

도하고 어떤 분은 울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 앉아 있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누워만 있기도 뭣하고 해서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용 침대에 앉아 조금을 기다리고 있자니 의사, 간호사 분들이 회의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분이 저에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어느새 병실로 입실하였고 한 2~3시간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골반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으며 일어나 앉기를 포기하고 다시 누우려니 만만치 않더군요.

그날 저녁 침대에서 저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저의 골수를 받은 그 친구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수 있었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더욱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퇴원 후 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골수분자'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골수기증수술에 대하여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우리 '골수분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동지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한 것에 대하여 알려야 할 때입니다.

참 그리고 저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수기증 전 그 동안 저를 힘들게 하였던 저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골수채취를 끝내고 퇴원한 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 힘든 항암치료 과정을 견디어 내고 이제 마지막 골수이식만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골수분자'들이 나서서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만큼 기증의 기쁨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조금만 희생 할 수 있다면 그 댓가는 엄청난 보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것이 꼭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엄청난 보답이...

꼭 이렇게 쓰니까 무슨 간증집 같네요.

잘 쓰지 못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의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골수채취를 기다리며

이 상 수

창 밖으로 인천항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학교를 인천에서 다니면서도 바다를 본지가 한참 되었는데, 골수기증 덕분에 오늘은 편안하게 병실침대에 누워 바다 구경을 다 해보게 되었다.
내일이 골수를 채취하는 날이다.
3월에 처음 연락을 받은 후 거의 두달 만이다. 원래는 4월에 기증했어야 했지만 이제야 하게 되었다.
골수기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자가수혈을 위한 채혈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는 시간이 조금은 어려웠다.
그런데 골수기증을 하려니 정작 주위의 걱정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어른들께서는 헌혈하는 것조차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하니 절대 반대이셨다.
특히 주위사람들의 편견은 너무나 심했었다. 후유증이 심하다는 말은 그래도 점잖은 편이었고 정신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심지어 예전에 '성덕바우만'에게 골수를 기증했던 분이 불구가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골수를 기증한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인가? 지금도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들인가? 그렇다면 골수기증을 어느 누가 하겠는가? 잘못 알고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위의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후회했던 적도 잠시 있었다. 하지만 '한국골수은행협회' 코디네이터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 학교에서 강의를 끝내고 골수채취를 위해 병원으로 오는 버스를 타면서 후련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이었다.
병실에 앉아 있는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일 내 골수를 받아 이식할 아이가 15살의 여자아이라는 사실밖에 아는 것이 없다. 그 외엔 아무 것도 모르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나의 조그만 희생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데 감사를 느낀다.
작년 가을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시골에 계신 작은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었다. 깨어나게만 해달라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작은아버님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지 6일만에 작은아버님은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하늘도 슬프게 비를 내리고 있었고, 나는 산에 가던 그날까지 정말 서럽게 울었다.
소중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이젠 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이다.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진다.
나 역시 내 골수를 받은 그 아이가 궁금하고 한번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아이가 완치되기를 바랄 뿐이며, 그 아이의 곁에 있는 분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 창밖에 보이는 인천항의 밤바다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내일은 골수를 채취하는 날인데.....
기다려진다.

TV에서만 일어나는 일

신 경 희

내가 백혈병과 골수기증, 골수협회에 대해서 알게된 건 모방송사 아침 토크쇼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난 '백혈병과 골수기증'은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이 내게도 있었던 것은 내가 골수협회에 등록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였다. 1월의 어떤 흐린 날, '나' 임을 확인하는 골수협회 코디네이터인 김은정씨의 전화가 왔다. 18세의 급성환자라고 했으며, 나와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한다는 말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고, 우리 오빠 역시도 반대아닌 반대를 했다. 내편이 되어준 사람은 희정이 언니뿐이었다.
HLA가 맞는다고 무작정 수술하는 것도 아니며 수술하기 전에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수술한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안된다고 했다. 난 어머니와 오빠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키기로 마음을 먹고(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해보고 싶어진다)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내 의사를 밝혔다.
지금도 내 팔과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있으며, 입원해 있는 동안 검사용 채혈을위해 금식도 해봤고, 3년 동안 맞을 주사를 그 동안에 다 맞은 것 같다.
내가 동의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정밀검사용 샘플 채혈을 하기 위해 협회 코디네이터인 김은정씨가 제주도로 출장을 왔고, 많은(?)양의 내 혈액을 가지고 갔다. 내 기분을 아는 듯 그날은 눈도 엄청 내렸다.
2주일 후 나온 검사결과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2월 22일에 건강진단을 받기로 했다.
건강진단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던 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도착시간 내내 긴장이 되었다.
병원에서 협회 직원인 나정화씨를 만나서 여기저기서 검사를 받았다. 이날도 역시 많은(?)양의 내 혈액을 가지고 갔다. 나의 경우는 골수를 골반에서 채취하지 않고 혈액에서 세포를 걸러내기로 했기 때문에 식구들의 동의를 얻는데는 성공했다.
세포를 많이 걸러내기 위해서 촉진제를 채취하기 전에 5회를 맞아야 되는데, 1주일이상 휴가를 받는게 힘들어서 제주의료원에서 맞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지난번에 받은 검사에 내 심장에 문제가 있어 초음파검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겨우 허락 받았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병원에서 4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에야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영민 대리님, 그래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예정보다 당겨서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촉진제 맞는 동안 본의 아니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하던 날, 수속을 마치고 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심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도 했고, 뭔가를 달고 있었는데, 휘날리는 눈 속을 뚫고 오면서 옷이 다 젖었다고 불평하던 친구녀석이 날 보더니 한마디 했다. '환자도 아닌게 환자인 척하면 너 벌 받는다.' 그래도 낯선 곳에서 그 친구라도 있었기에 마음이 든든했다.

4일 동안 촉진제를 맞고 나서 헌혈실로 내려가던 날 아침엔 내 몸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촉진제의 영향으로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랬다. 채혈을 시작하고 나서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담당선생님께서 오셨다. 난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빨리 끝내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왕 시작한 것 조금만 참고 끝까지 하고 그 대신 다음날 일찍 끝낸다고 약속하셨다. 두 번째를 위해서 촉진제를 또 맞았는데 여전히 아팠다. 전날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지만 다음날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퇴원하던 날 날씨가 정말 좋았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가 퇴원하는걸 알았는지 날씨는 정말 정말 좋았다.

비행기가 10분 후면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만큼 기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난 순수한 마음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내 식구들과 집, 매일 되풀이 되는 직장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골수기증에 동의했던 것 같다.

병원에 있을 때 우연히 13층 골수이식병동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무성의하게 했던 일이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내 골수를 받은 환자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다.

10일간의 휴가를 주신 김태조 소장님,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주신 김길홍 부장님과 고훈철 반장님, 그리고 착한(?)일 한다고 칭찬해 주신 오창준, 송재돈 과장님, 건강진단 받을 때랑, 입원한 동안 병문안(?) 오느라고 고생한 정말 정말 좋은 내 친구 용탁이, 나 때문에 눈오는 날 목숨걸고 출장온 협회 은정씨랑, 친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영민 대리님과 마지막으로 날 건강하게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내가 올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희정이 언니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도 같이...

생명을 나누는 기쁨

허 신 자

생도시절 1990년대 중반 간호학을 공부하며 생도 2학년 2학기부터는 실습도 하게되었다. 그 때부터 생긴 고민이 의료적 처치를 해줄 수 없는 환자에게 내가 진정 최선을 다해 간호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던 중 실습하러간 외부 대학병원에서 장기기증과 골수기증에 대한 자그마한 스티커를

보게 되었다. 온전한 간호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집에 와서 부모님은 반대하실 것 같아 남동생과 의논한 뒤 장기와 골수기증에 대한 신청서를 보냈다.
1997년 여름 골수기증 전 혈액채취를 하던 날 비가 내렸었다. 10㏄도 안되는 피를 뽑고 나오면서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잠깐 생각한 후 일상생활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2000년 여름!
갑자기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신기하기까지 하였다. 나랑 맞는 사람이 있다니...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군인이므로(본인은 현역 간호장교 중위임) 국군창동병원에 알려 허락을 받은 뒤 입원날짜를 12월 마지막 주로 정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골수이식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아쉽기도 했지만 그 치료법으로 잘 되길 바라며 나는 내가 골수기증 할 것이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 버렸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정말 내가 나의 이웃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환자들에게 참된 간호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다.
이 때부터 나는 골수기증을 할 준비로 잘 먹고 잘 쉬고 가시고기도 읽어보고 가을동화도 관심 있게 보고 철분제도 복용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다시 군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얻어 입원하였다.
수술 받으면서 나는 부분마취를 했기에 의식이 있는 상태라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때 나는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또 다른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나누는 것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나누어주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알았다.
또한 감사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절대자께 말이다.
수술 직후 둔부통증이 있었지만 통증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
그 분이 잘 완쾌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얻은 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 특히 국군창동병원 식구들께 감사 드린다. 내가 근무 못하고 쉴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었으며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이들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 주신 분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골수기증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는 정말 권하고 싶다.
인생에 있어 좋은 경험이라고...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김 선 구

3년 전 어느 날인가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혈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골수기증에 참여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생각 없이 골수기증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반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수은행협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골수기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스레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 속으로 결정한 터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골수은행협회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전하였습니다. 기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몇 차례의 채혈과 헌혈,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 몸이 골수를 기증하는데 좋은 몸 상태이기를 바랬고, 저의 건강한 골수로 그 학생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검사결과 골수기증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였고 수술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수술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는 처음으로 입어보는 환자복의 어색함과 함께 하루를 병실에서 지내게 되었고, 드디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왠지 어색한 느낌과 지금 골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그 학생을 생각하며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취 때문인지 수술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끝나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실에 옮겨져 약간의 뻐근한 느낌과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해도 괜찮다는 의사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퇴원준비를 하면서 코디네이터 분에게 골수를 받을 학생의 수술 일정도 물어보고, 그 학생이 빨리 완쾌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골수기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남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끔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서...

제가 골수기증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수술 전날 전화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사랑하는 수현이 어머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수혜자이야기]

새롭게 이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김 정 호

기증자님께 올립니다.
기증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용서를 빕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먼저 올려야 하는데
기증자님께서 저보다 인사를 더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까지 늦었으니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기증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하다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기증자님께 올려야 할지.....
정말 정말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기증자님으로 인해 제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증자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기증자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기증자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기증자님! 기증자님이 주신 골수 덕분에 적혈구와 백혈구는 거의 정상 수치이고 혈소판 수치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큰 부작용만 없으면 3~4년 뒤에 완치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증자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기증자님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외부 원고]

헌혈과 환경

손 희 만(낙동강환경관리청장)

우리는 흔히 어렵게 성취한 업적을 두고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리고 국가나 자기가 속한 조직이 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함께 참고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을 같이 흘리자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와 땀'이 상징하는 의미는 순수한 열정과 정직한 노력,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무한의 자기희생이 아닐까 한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이러한 순수함과 정직 그리고 상호신뢰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피와 땀'을 기꺼이 흘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만큼 좋은 건강법은 없고, 요사이 유행하는 살빼기 작전에도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의 환경도 그만큼 건강해질 것이다.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가고, 쓰레기 하나라도 지정된 장소에 버릴 수 있는 노력,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이 이마에서 땀을 흐르게 하여 자신의 건강은 물론 우리의 환경을 싱싱하게 가꾸어 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헌혈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사회는 그만큼 튼튼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헌혈하는 마음은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이면서 진정한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의 출발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혈은 혈액순환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되어 우선 육체적인 건강에 좋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다.
우리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우리의 환경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피와 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 많은 사람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5-3=2..../ 2+2=4의 의미

제공자 : 정 호 철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5-3=2)..(2+2=4)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어렵게 생각이 들지 않는 계산이라 쉽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설명은 아래와 같았습

니다.
(5-3=2)란, 어떤 오해(5)라도 세 번(3)을 생각하면 이해(2)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2+2=4)란, 이해(2)와 이해(2)가 모일 때 사랑(4)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 오해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5-3=2)라는 아무리 큰 오해도 세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풀이가 새삼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영어로 "이해"를 말하는 "understand"는 '밑에 서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이해가 모여 사랑이 된다는 말 너무도 귀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이해인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은 "가까운 타인" 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린 듯 싶습니다.
낚시 바늘의 되꼬부라진 부분을 "미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걸린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미늘 때문입니다.
가까운 타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 미늘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놓인 벽 앞에 모두가 타인이 되곤 합니다.
(5-3=2)..(2+2=4)란 단순한 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멀리 떨어뜨려 놓은 온갖 오해를 따뜻한 이해로 풀어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